

한우자조금,  
한우114와 함께하는 2015 한우  
캠핑 페스티벌 행사 개최



한우자조금은 지난 6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경기도 가평 소재인 현리365캠핑랜드에서 '한우114와 함께하는 2015 한우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한우 캠핑 페스티벌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한우를 먹으면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삼시세끼 한우 캠핑' 콘셉트로 진행했으며 총 96팀 370여명의 가족들이 참가했다.

한우자조금은 행사에 참가한 팀에게 2박 캠핑 사이트 무료 제공과 캠핑하는 동안 삼시세끼를 한우로 즐길 수 있도록 등심과 불고기, 사골곰탕 팩으로 이루어진 '한우 삼시세끼 캠핑 패키지'를 제공했다.

캠핑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삼시세끼 한우 캠핑요리 뽑내기'로 '다이어트 한우 양지수육과 시원한 소고기국'을 선보인 홍성진 씨가 1등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아빠와 자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명랑운동회, 한우 테이스티 파티, 한우 사랑 손도장 찍기 및 가족기념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뜻 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  
'한돈 가격안정 프로젝트'  
추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가 최근 고돈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돈 가격안정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하남 돼지집 논현직영점(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대표, 장보환 하남돼지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돈 가격안정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6,000원대를 넘어서면서 소비자 가격도 kg당 2만 원대를 웃도는 등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가격안정 자금을 할인행사에 지원키로 하고 농협과 한돈인증점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6월 16일부터 시작된 한돈 가격 안정 프로젝트는 하남돼지집을 비롯한 우수 한돈인증점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를 통해 진행되며, 한돈 인증 음식점 169개점에서는 삼겹살을 1인분에 2,000원씩 할인된 가격에 13만 인분을 지원한다. 또한 한돈 인증 식육점 52개소에서는 앞다리살을 정상가보다 30% 할인한 100g당 800원에, 뒷다리살은 450원에 제공하며, 하나로마트에서도 한돈 저지방부위 할인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이병규 위원장은 “이번 할인 행사는 한돈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며 “질 좋은 한돈을 저렴한 가격에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한 한돈 농가들의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15. 06. 19]

### 재미있는 우유송 UCC공모전 추진



원유생산 과잉 및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유 재고량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축산경제 대표 이기수)에서 대국민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재미있는 우유송 UCC Contest”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대

사인 아이돌그룹 '블락비'가 부른 우유송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새롭게 따라 부르는 영상을 공모전 전문사이트 더콘테스트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예선 심사는 내부심사 60%, 대중투표 40%로 진행되며, 2차 본선에서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의 내부평가로 최종 8작품을 선정하게 된다(8월중).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농협중앙회 회장표창,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표창을 포함해 각각 상금 100만원과 50만원이 수여된다.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대표는 “최근 겪고 있는 낙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축산인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며 “재미있는 우유송 UCC 공모전을 통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국내 낙농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미있는 우유송 UCC 공모전이 진행 중인 더콘테스트([www.thecontest.co.kr](http://www.thecontes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브뉴스 김세정 기자 [2015. 06. 11]

### 토종담협회, 산닭 소비 활발한 충북소재 육거리시장 방역시설 강화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는 전통시장을 통한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4건의 고병원성 AI가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이에 협회는 전통시장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 정태영)에서는 산닭판매점에 대한 차단방역 제고를 위해 토종닭 산닭 소비가 활발한 충북 소재 육거리시장을 지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방역 시설 강화했다.

먼저 시장 내 산닭 판매 점포 모두 고압소독기를 비치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일부 점포에 대해 어리장 및 도계시설 등을 현대화 했다. 특히 어리장의 경우 닭털, 계분 등 잔존물이 남을 수 있어 질병 전파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소독이 필요했다. 개선된 어리장은 분변 등 잔존물 처리 및 소독이 용이해 보다 확실한 차단방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닭유통분과 정태영 위원장은 “청주 육거리시장을 모델로 삼아 전국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영세한 산닭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면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산닭 판매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법안 개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정부 방역정책에 의거, 전통시장 등 산닭 판매점의 방역 실태 점검을 위해 협회 회장, 상임부회장, 농가분과위원장, 산닭유통분과위원장, 각 지회장 총 16명에 대

해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받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라이브뉴스 김세정 기자 [2015. 06. 10]

## 양봉협, 세계양봉대회 준비 순항

세계 양봉대회 개최를 앞두고, 세계양봉연맹(APIMONDIA)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는 올해 9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양봉대회 준비상황 점검차 세계양봉연맹 임원들이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임원들은 질레스 라티아 회장을 비롯 총 18명으로 이들은 대전 행사장 답사 및 세계양봉대회 관련회의, 세계양봉연맹 임원회의, 국내 양봉기자재 생산업체, 벌꿀 생산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방문자들은 행사기간 중 실제 참가자가 이용하게 될 시설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행사장 배치 및 조성계획 등을 면밀하게 살펴봤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세계양봉대회는 올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양봉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유치한 행사로 총회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의 행사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7천여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5. 27]

## 사슴협, 우수사슴선발대회 기준 강화

우수사슴선발대회 출전기준이 강화됐다.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는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우수사슴선발대회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우수사슴 선발대회는 오는 7월 28일 개최 예정이다. 무엇보다 출품기준을 강화해 우수사슴 선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회로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녹용의 무게를 기존 14kg 이상에서 15kg 이상으로 올리고, 각관길이를 5~10cm에서 5cm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준강화에 따라 대회 참가 자체가 어려운 농가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농가는 “우수한 녹용을 선별해 출전시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슴협회 관계자는 “대회 명칭이 우수사슴선발대회다. 참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농가들의 우수 녹용 생산 의지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5. 28]